

데스크시각

정 후 식



광주는 하나였다. 주먹밥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생채기를 보듬었다. 네 것 네 것이 없었다.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혈액이 부족해지자 헌혈 행렬이 줄을 이었다. 치안 부재의 상황에서도 금용기관은 안전했고 좀도둑도 자취를 감췄다. 수천 점의 총기가 나돌았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공동체 질서는 높은 시민정신과 도덕성, 자치능력에 의해 유지됐다.

만무하는 '진흥당 싸움터'로 전락했다. 그러는 사이 '광주정신'은 박제화 되어가고 있다. 5월 단체들은 80년 이후 5·18 진실규명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외롭고 지루한 싸움

취했지만 지난 2월 일부가 이탈하면서 공조의 틀이 깨졌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지난달 10일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남성중인 도청별과 앞으로 물려가 '농성장 철거'를 요구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5·18기념재단 이사장 선출을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일부 5월 단체들이 공모 절차의 문제점을 들어 잇따라 지지하자 재단측은 회의 장소까지 옮겨가며 새 이사를 뽐내는 촌극을 연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5월 5일 행사를 앞두고 5월 단체와 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로 재편됐고 3년여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통합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5·18 정신 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공방단체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5월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를 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슬한 갈등을 빚어왔다. 곡절 끝에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로 재편됐고 3년여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통합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5·18 정신 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공방단체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과일들은 계속됐다. 3개 단체는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원칙을 내세우며 보조를 맞

박제화 되는 광주정신

그로부터 한 세대가 바뀌는 세월이 흐른 지금, 광주는 갈기갈기 찢겨졌다. 5월 단체의 주도권 다툼으로, 문화전당 건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분오열됐다. 80년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옛 도청은 몸싸움과 욕설이

우를 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슬한 갈등을 빚어왔다. 곡절 끝에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로 재편됐고 3년여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통합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5·18 정신 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공방단체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과일들은 계속됐다. 3개 단체는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원칙을 내세우며 보조를 맞

하지만 과일들은 계속됐다. 3개 단체는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원칙을 내세우며 보조를 맞

특 선 5·18 광주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추모객들이 되레 광주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길 정도였다.

5월 시민에게 돌려줘야

이제 5월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동체 정치를 일궈낸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으로 갈등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다짐으로 30주년을 준비해야 한다. 광주정신을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비민주를 혁파하는 시대정신으로 일으켜 세워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인류사의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5·18 최후 격전지 보존이라는 상징적인 주장에도 지역민들이 호응하지 않은데 대해 5월 단체는 그동안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5월의 사유화, 5월의 권력화’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역사회의 자량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해야 한다.” 한 시민단체의 고언을 곱씹어보아야 한다.

다시 5월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가오는 30주년을 시민이 주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문화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도 뒷받침 지고 있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시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본분 망각한 住公

대한주택공사가 때인 '집장사'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진월택지주에 공급하는 40평형대 이상 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는 최근 광주시 남구 노대동 진월택지개발지구 내 C-2블럭에서 분양하는 4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404가구의 분양가를 3.3㎡당 평균 652만원에 책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40평형이 넘는 대형 주택아파트가 분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부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에 힘껏 부풀어 있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분양가 뺨치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허탈감에 빠졌다.

실제로 이번 주택아파트 분양가는 민간업체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최근 잔여 세대를 분양중인 수완지구 H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16.27㎡(43평형)

의 분양가가 2억8천600만원으로 3.3㎡당 665만1천원이다. 분양 시기나 입주여건 등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평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주공의 고분양가 책정은 정부의 시책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주공에 대형 아파트 분양을 허용한 이유는 적정 분양가 유도를 위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주공은 진월택지지구 주택용지 매각을 통해 31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과거'가 있다.

주공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공적 의무가 있다. 민간업체와 맞먹는 분양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지금이라도 주공은 설립 취지에 맞게 아파트 분양가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요란스런 'U대회 유치 축제' 마뜩찮다

2015 U(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축제가 오늘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한다. 광주시가 유치 보고회와 함께 유치 성공의 감동을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광주가 처음으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U대회를 계기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치 축하행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나 지역이 처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여전하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등 국내 분위기가 간단치 않다. 여기에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지역민들의 심사도 결코 편치 않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 유망 연예인을 대거 초청해 대규모 축제행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과조차 이번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장소문제만 해도 그렇다. 광주시는 예초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 앞에서 개최하려 했다. 옛 전남도청에는 아직까지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어 추모의 향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장소에서 축제 마당을 벌이는 것은 초상집 앞에서 잔치하는 꼴이다. 시가 추모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소를 부랴부랴 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했지만 사례 값지 못했다.

시는 여당초 보고회와 축하행사를 지난달 28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추모에 따라 영결식과 삼우제가 모두 끝나는 3일로 일정을 연기하는 등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도 보인다. 또한 유치 성공의 기쁨과 감동을 모든 시민과 함께하려는 심정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렇다 해도 모든 일에 시기와 때가 맞아야 하는 법이다. 광주시의 너무 앞선 의욕이 U대회 유치 감동을 오히려 반감한 것 같아 안타깝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클럽



강 대 식

얼마 전 토요일, 모임이 있어 진도를 찾았다. 마지막 불비 속에 대치는 축축이 젖는데 '원형의 심, 진도'(김훈의 저서)는 수목화의 여백처럼 아름다웠다. 남종화의 산수인 윤립산방을 찾았을 때, 마침 산방 한편에서 남도예술은행의 토요경매가 열리고 있었다. 시간적 여유도 있어 한참 동안 지켜보았는데 그림스팔과 함께 사사사사 국악도 곁들여져 흥미를 더했다. 그러나 삼삼이 점의 작품이 경매에 붙여지는 동안 낱알된 작품은 그리 많지 않았다. 불경기인

문자 "예술가를 만나면 먼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가를 만나면 예술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에나 지금이나 몇몇 유명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도의 남도예술은행 운영은 지역작가를 위한 아주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예술을 사랑하

기 고

송 재 빈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이란 말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담배가 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고 상륙했을 때 그곳의 원주민들이 불 붙은 잎 통치를 들고다니며 피우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한두 번 피워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담배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의 해가 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결의한 금연의 날이다.

계에 따르면 담배소비 지출액은 8조 1670억 원으로 2000년의 5조3553억 원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값이 오른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감소세이던 성인 흡연율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심상치 않다. 경제위기와 정치 사회적 난맥 속에 국민의 가슴이 담배처럼 타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전국적으로 담배·라이터불로 인한 발생한 화재는 전체 발생한 화재 중 26%

담배 권하는 사회

WHO에 따르면 “담배로 매년 5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며 이는 에이즈나 말라리아, 결핵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흡연자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담배가 청소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매년 거둬들이는 정부재정의 일정 부분을 담배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 중 가장 액수가 큰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시세(市稅)로 편입되고 도에서는 시·군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우리나라의 담배로 걸친 돈은 주세나 증권거래세보다 많은 정도로 국가 수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등록세, 취득세가 적은 시골(군)에서는 담배세의 위상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8조 원이라는 돈이 담배연기로 사라졌다는 소식이다. 한국은행 통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공공재의 하나인 산림도 담배불에 의해 한 순간의 잿더미로 만든 예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주위에서 금연만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과 글도 드물다. 병원, 비행기, 열차, 공항은 물론 식당과 화장실, 일반 사무실도 이를 썩 붙인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전 직원 금연'을 선언했다.

또한, 지터라 담배도 개인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담배갑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도 있다.

또 하나 검토할 것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제조하는 일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권련지에 소화(消火)기능이 있는 담배를 개발한 바 있다.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화재에 안전한 담배 기술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광주북부소방서>

지역 문화 예술 살찌우려면

맛도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서민들에겐 그림 구입이 선택 쉽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순수 예술을 고집하며 활동하는 전업 작가들의 삶은 고달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요경매는 전남도가 남도예술은행을 설치하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그림을 제값에 사들여 반값 정도로 경매하는 제도로, 예술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일반인들에겐 산뜻한 그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전남도의 아이디어 시책이다.

예술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가장 깨끗하고 고귀해야 하지만 돈 없이는 이를 수도 활동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술이다.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가 한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내 뒷골목에서 사업가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시민이 그에게 동료 예술인들과 만나지 않고 사업가들과만 만나는 이유는

고 향유할 줄 아는 도민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생활에 다소 여유가 있다면 백화점에서 명품 옷가지를 고르거나 다방작가들의 소품 한점 사는 것, 공연 한 참 보는 것 등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람이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을 살찌우게 하는 일이다.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큰 자산은 지역의 특색이 담긴 문화와 예술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작가 한 사람이나 작품 한점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이미지가 높이는 향토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산수가 맑고 아름다운 녹색의 땅 전남에 많은 예술인이 찾아와 살고,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더욱 많이 질 때,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그만큼 높이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 질 것이다.

<전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행정지원실장·시인>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결집을 쓰는 코너입니다.

확성기로 찬송가·설교...휴일이 고통스럽다

오랜만에 가족과 바람을 쐬며 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날들이 기본은 오래 가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작은 트럭을 몰고 와서 길가에 세워놓고는 트럭 중간에 스피커를 설치한 뒤 마이크 소리를 높여 설교하고,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 장시간 찬송가까지 불렀다.

아예 확성기와 마이크까지 동원해 트럭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쩌렁쩌렁한 소리로 설교를 하며 찬송가까지 부른다. 가족들, 연인들과 함께 단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없다.

나 역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런 종교 활동은 어디에 가서도 대우를 받을 수 없다. 하물며 타 종교인이거나 무종교인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은 전도가 아니라 거부감과 불쾌감만 줄 뿐이다.

많은 사람이 바쁜 생활 속에 잠시라도 자연을 벗삼아 좋은 공기와 단란한 시간을 보내려고 찾은 곳에서 기본 상하게 하는 행동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종교가 영혼을 맑게 하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짜증을 준다면 분명 문제 아닌가.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아파트 베란다 흡연, 이웃 배려해 자제했으면

우리집은 아파트이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 우리 가족은 담배냄새를 맡을 일 없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아래층 집주인인 중년의 아저씨가 베란다에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 그 옆층인 우리집으로 올라온다. 겨울철이야 베란다 창문을 닫고 살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벌써 작년 여름 내내 고생했던 일이 떠올라 신경이 곤두서있다.

작년 여름 몇 달간 우리 가족은 너무나 힘들었다. 그 아저씨에게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봤지만 자기네 베란다에서 자기가 담배피우는 것까지 왜 이웃집에서 시비나는

투로 대답한다. 물론 자기 집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게 자기가 자유고 자기 마음이다. 그러나 그게 위층으로 타고 올라와 위층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제발 좀 참고해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여름철에는 날이 더우면 거실로 나와서 창문을 열고 잠을 자기도 하는데 우리는 업무가 안 난다.

정말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을 삼가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매너도 지키고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도 좀 있기를 바란다.

▲문서희·광주시 광안구 송치동

Advertisement for 'Nogoo' (無等鼓) magazine,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and text about the magazine's content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Table with 2 main sections: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